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민경, 김미숙*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Min-Kyung Jeon, Mi-Sook Kim*
Division of Nursing, Kay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서조절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K시와 B시에 소재한 4개의 간호대학에서 3, 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자가보고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 20.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Scheffé'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감정조절 능력 평균은 5점 만점에 3.79±0.48점, 적극적 대처는 4점 만점에 2.79±0.41점, 소극적 대처는 2.53±0.36점,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8±0.46점 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정서조절능력($r=.391, p<.001$), 적극적 대처($r=.361, p<.001$) 및 소극적 대처($r=.276,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전공만족도($\beta=.318, p<.001$)와 정서조절 능력($\beta=.230, p<.001$)으로, 이들 모형의 설명력은 28.1%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regulation, coping strategie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and examined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May 1 to June 30, 2016. The study participants were 201 third and fourth year nursing students at four departments of nursing located in B and K metropolitan city.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Scheffé'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WIN v 20.0. The mean emotional regulation score was 3.73±0.48, active coping was 2.79±0.33, passive coping was 2.53±0.36, and practice satisfaction was 3.58±0.46.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noted between emotional regulation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r=.391, p<.001$), between active cop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r=.361, p<.001$), between passive cop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r=.276, p<.001$).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were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major ($\beta=.322, p<.001$) and emotional regulation ($\beta=.232, p<.001$). These factors explained 28.1% of variance in participant'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In conclusion, effective nursing educational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to enhanc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to foster positive emotional regulation in nursing students.

Keywords : Clinical Practice, Coping Strategies, Emotional Regulation, Nursing,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Mi-Sook Kim(Kaya Univ.)

Tel: +82-55-330-1055 email: kms0502@naver.com

Received November 15, 2016

Revised (1st December 7, 2016, 2nd December 19, 2016)

Accepted January 6, 2017

Published January 31,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이 전문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실제 임상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응용력 및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고,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직업관을 정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대학생은 대상자의 건강과 질병에 관심을 가지고 간호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질적인 간호제공을 지향하는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 미래의 전문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1, 2].

임상실습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어려워하고 만족도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 임상실습을 위해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4].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현장에서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환자 돌봄에 대한 긴장감, 과다한 과제에 대한 부담, 낯선 임상환경에 대한 적응, 실수에 대한 두려움, 실습을 함께하는 동료와 임상실습 지도자 및 의료진과의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6]. 이러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불만과 실패감, 긴장과 불안, 좌절과 우울 등과 같은 여러가지 심리적 건강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개인의 자원과 능력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내·외적 요구를 지각하고 행동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대처방식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임상실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3, 7].

스트레스 대처란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스트레스원을 제거하거나, 특정 사건이 스트레스원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에 능동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8],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적절하지 못했을 경우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임상실습 적응 및 실습만족도가 저하되어 간호에 대한 태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9].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를 위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6], 정서조절 능력은 의식적인 통제 과정으로서,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서 상태와 기분을 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적응을 위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10,11]. 즉, 자신의 정서를 반성적으로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간호사는 다양한 임상 환경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다양한 대상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또는 정서의 조절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간호사에게 필수 전제 조건이다[4]. Jang[12]의 연구에서 정서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낮게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정서조절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6].

간호대학생에게 임상실습은 간호교육의 중요 부분이고 간호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실습 동안 다양하게 직면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긍정적인 대처 방식과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함으로써 미래의 전문 간호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4, 13].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정체감을 구축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는 효율적인 임상실습 스트레스 중재와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12, 14].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임상수행능력[15], 가족지지[16],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17]등의 변수와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었으며,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18]에 대한 설명변수로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정서조절을 확인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정서조절 능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임상실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서조절 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K시와 B시에 소재한 4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자료수집에 참여를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220명중 자료가 불성실한 19명을 제외한 201명이다. 연구대상자 표본수는 표본수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 하였다. 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인 .1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95, 예측요인 10으로 산출한 결과 최소 172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어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정서조절 능력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와 Mayer[19]의 정서지능 이론에 근거해 Moon[10]이 개발한 총 47문항의 정서지능검사(Emotional Quotient Test) 중 정서조절 능력에 관한 1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정서조절 능력은 자신정서조절(8문항), 타인정서조절(7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 $\alpha=.8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 이었다.

2.3.2 스트레스 대처방식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Lazarus와 Folkman[20]이 개발하고 Han과 Oh[21]가 번역하고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대처유형은 문제 중심(8문항), 사회적지지 탐색(7문항), 긍정적인 관심(4문항), 희망적 관점 (5문항), 긴장해소(3문항), 무관심(6문항)으로 5개 하위영역의 총 33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항상 그렇다’에 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중심 대처와 사회적 지지 탐색 대처를 적극적 대처로, 긍정적 관심 대처, 희망적 관점 대처, 긴장해소 대처, 무관심 대처를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였다[22]. Han과 Oh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1$ 이었다.

2.3.3 임상실습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Cho와 Kang[23]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도구와 Lee[24]가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도구를 Lee 등[2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영역은 실습과교과에 대한 만족(3문항),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6문항),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9문항),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7문항),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3문항), 실습평가에 대한 만족(3문항)의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등 (2004)[2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2$ 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K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search board)의 승인을 받았으며(승인번호 IRB-126호),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의에 의한 참여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설문지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질문지에 응답케 함으로써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6년5월 1일부터 2016년 6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배부된 설문지 총 220부중에서 미응답이 있거나 부적절한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201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제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정서조절 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 임상실습 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정서조절 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는 t-test, ANOVA, Scheffe test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정서조절 능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정서조절 능력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종속변수인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성별은 여자가 88.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대상자의 연령대는 20-21세가 63.2%를 차지하였으며, 학년은 4학년이 50.7%, 3학년이 49.3% 순이었다. 종교는 '있다' 군이 65.7%, 종교가 '없다' 군이 34.3%이었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한다' 군이 59.7%, '보통이다' 군이 35.3%로 나타났다. 동료관계는 '좋다' 군이 62.2%, '매우 좋다' 군이 17.4%로 나타났다. 지각한 건강상태는 '건강하다' 군이 46.3%, '아주 좋다' 군이 17.4%로 나타났다. 입학 동기는 적성과 취미가 42.8%, 취업률이 26.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23(11.4)
	Female	178(88.6)
Age(years)	20-21	127(63.2)
	22-23	52(25.9)
	24-31	22(10.9)
Grade	3rd	99(49.3)
	4th	102(50.7)
Religion	None	69(34.3)
	Have	132(65.7)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120(59.7)
	Moderate	69(35.3)
	Dissatisfaction	12(6.0)
Relationship with peers	Very good	35(17.4)
	Good	125(62.2)
	Common	12(6.0)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good	44(21.9)
	Good	93(46.3)
	Common	48(23.9)
Admission motivation	Bad	16(8.0)
	High school rate	10(5.0)
	Appropriate aptitude	86(42.8)
	Employment rate	53(26.4)
	Others	52(25.9)

3.2 대상자의 정서조절 능력, 스트레스 대처 방식,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

대상자의 정서조절 능력 평균은 3.73점(5점 만점)이었으며, 하위요인인 자신정서조절 능력은 3.67점, 타인 정서조절 능력은 3.79점이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2.65점(4점 만점)이었으며, 하위요인인 적극적 대처방식은 2.79점, 소극적 대처 방식은 2.53점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3.58점 (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은 실습 교과(3.77점), 실습 평가(3.62점), 실습내용(3.59점), 실습환경(3.56점), 실습지도(3.54점), 실습시간(3.48점)순이었다[Table 2].

Table 2. The level of variables (N=201)

Variables	Items	M±SD	Range
Emotional regulation	15	3.73±0.48	1-5
Self-emotional regulation	8	3.67±0.55	
Other's emotional regulation	7	3.79±0.52	
Coping strategies	33	2.65±0.33	1-4
Active coping	15	2.79±0.41	
Passive coping	18	2.53±0.36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31	3.58±0.46	1-5
Practice subject	3	3.77±0.64	
Practice contents	6	3.59±0.47	
Practice guidance	9	3.54±0.58	
Practice circumstance	7	3.56±0.57	
Practice time	3	3.48±0.74	
Practice assessment	3	3.62±0.6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정서조절 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임상실습 만족도 차이

대상자의 정서조절 능력은 전공만족도($F=6.976, p<.001$), 동료관계($F=5.267, p=.006$), 건강상태($F=5.775, p=.001$), 입학동기($F=6.61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e test로 사후분석한 결과 전공에 '만족한다' 군이 '보통이다' 군과 '불만족한다' 군보다, 동료관계가 '매우 좋다' 군이 '보통이다' 군보다, 건강상태가 '매우 좋거나 좋다' 군이 '나쁘다' 군보다, 입학동기가 적성을 고려한 군이 취업률 및 기타로 입학한 군보다 정서조절 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전공만족도($F=4.640, p=.011$), 동료관계($F=5.624, p=.00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e test로 사후분석한 결과 전공에 ‘만족한다’ 군이 ‘보통이다’ 군보다, 동료관계가 ‘매우 좋다’ 군이 ‘보통이다’ 군보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전공만족도(F=22.567, p<.001), 동료관계(F=9.957, p<.001), 건강상태(F=2.733 p=.045), 입학동기(F=4.301, p=.00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e test로 사후분석한 결과 전공에 ‘만족한다’ 군이 ‘보통이다’ 군과 ‘불만족한다’ 군보다, 동료관계가 ‘매우 좋다’ 군이 ‘보통이다’ 군보다, 입학동기가 적성을 고려한 군이 취업률을 고려한 군보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정서조절 능력, 스트레스 대처와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정서조절 능력(r=.391, p<.001), 적극적인 대처(r=.292, p<.001), 소극적인 대처(r=.196, p=.005)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생의 정서조절 능력, 적극적인 대처, 소극적인 대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4].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01)

Variables	Emotional regulation	Active coping	Passive coping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Emotional regulation	1			
Active coping	.361 (p<.001)	1		
Passive coping	.276 (p<.001)	.432 (p<.001)	1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391 (p<.001)	.292 (p<.001)	.196 (p=.005)	1

3.5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임상실습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전공만족도, 동료관계, 건강상태, 입학동기, 그리고 실습

Table 3.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Emotional regulation		Coping strategies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3.71±0.49	-1.316 (.190)	2.64±0.32	-.761 (.448)	3.57±0.46	-1.054 (.293)
	Female	3.85±0.43		2.70±0.35		3.67±0.43	
Age(years)	20-21	3.72±0.51	.280 (.756)	2.63±0.33	.789 (.456)	3.61±0.47	1.433 (.241)
	22-23	3.71±0.45		2.69±0.33		3.49±0.43	
	24-31	3.80±0.43		2.67±0.25		3.63±0.43	
Grade	3rd	3.07±0.54	-.693 (.489)	2.63±0.34	-.687 (.493)	3.51±0.47	-.229 (.819)
	4th	3.75±0.43		2.66±0.31		3.59±0.45	
Religion	None	3.67±0.47	-1.173 (.242)	2.60±0.37	-1.329 (.185)	3.52±0.54	-1.310 (.192)
	Have	3.76±0.49		2.70±0.31		3.61±0.41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a	3.38±0.52	6.976 (<.001)	2.69±0.33	4.640 (.011)	3.73±0.44	22.567 (<.001)
	Moderate ^b	3.61±0.38		2.55±0.29		3.41±0.38	
	Dissatisfaction ^c	3.45±0.35		2.74±0.36		3.05±0.39	
Relationship with peers	Very good ^a	3.89±0.43	5.267 (.006)	2.77±0.37	5.624 (.004)	3.78±0.49	9.957 (<.001)
	Good ^b	3.74±0.50		2.65±0.29		3.60±0.44	
	Common ^c	3.54±0.44		2.53±0.36		3.34±0.38	
Health status	Very good ^a	3.83±0.45	5.775 (.001)	2.70±0.35	.707 (.549)	3.73±0.42	2.733 (.045)
	Good ^b	3.80±0.50		2.61±0.30		3.57±0.41	
	Common ^c	3.63±0.38		2.66±0.33		3.50±0.53	
	Bad ^d	3.34±0.52		2.66±0.35		3.43±0.54	
Admission motivation	School record ^d	3.54±0.57	6.615 (<.001)	2.60±0.32	2.019 (.113)	3.35±0.52	4.301 (.006)
	Interest ^b	3.89±0.49		2.71±0.32		3.70±0.41	
	Job ^c	3.64±0.46		2.59±0.30		3.45±0.43	
	Others ^d	3.58±0.40		2.60±0.35		3.55±0.51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정서조절 능력, 스트레스 대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잔차 분석 결과 Durbin-Watson은 1.928의 수치로 나타났으며,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12.154, p<.001$).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는 0.74~0.93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8~1.36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최종적으로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beta = -.318, p<.001$)와 정서조절 능력($\beta=.230, p=.001$)으로 나타났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the Participants (N=201)

Variables	BETA	B	SE	t (p)	Adj. R2	F(p)
(Constant)		2.698	.360	7.487 (<.001)	.281	12.154 (<.001)
Emotional regulation	.230	.218	.066	3.309 (.001)		
Satisfaction on major	-.318	-.240	.050	-4.775 (<.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서조절 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알아보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정서조절 능력 정도는 3.73점(5점 만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ang[12]의 연구에서 3.80점으로 나온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n[2]의 연구 결과 3.29점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Jang[12]의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실습을 1년 이상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와 Han[2]의 연구에서는 실습 경험이 1년이 안된 학생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서조절능력은 교과과정 프로그램 개발 시 저학년부터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계열성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 정도는 적극적

대처 2.79점(4점 만점), 소극적 대처 2.52점(4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3]에서 적극적 대처가 2.60점으로 소극적 대처 2.56점보다 높은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적극적 대처의 하위문항 중 문제중심대처와 사회적 지지 탐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당면한 스트레스 상황을 직시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 탐색과 같은 건강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5, 26].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를 위해서는, 문제중심대처와 사회적 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3.5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제 간호대학생의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13]의 연구에서 3.44점, 4년제 간호대학생의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Kwak과 Lee[27]의 연구 3.44점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통보다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임상실습 만족도의 하위 영역 중 실습 교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실습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도 실습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3, 16]. 이러한 실습시간에 대한 부족을 효율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는 교내 시뮬레이션 센터를 교과목별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28].

반면, Kwak과 Lee[27]의 연구에서는 하위영역 중 실습 교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나, Park과 Han[3], Gu[16]의 두 연구에서는 실습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추후 병원 규모에 따른 실습 환경 및 실습 교과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조절 능력은 전공 만족도($F=6.976, p<.001$), 동료관계($F=5.267, p<.001$), 건강상태($F=5.775, p<.001$), 입학동기($F=6.61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Jang[12]의 연구 결과 전공만족도, 건강상태, 친구지지, 학과 선택 동기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Back [29]의 연구에서도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

와 유사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대인관계가 매우 좋은 군이 보통인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은,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사람이 타인을 배려할 줄 알므로 대인관계가 좋다고 한 Moon[10]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정서조절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대인관계 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또래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입학 시점부터 입학 동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교과과정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는 전공 만족도($F=4.640, p=.011$), 동료관계($F=5.624, p=.004$)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전공에 만족하는 군이 보통인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Park과 Jang[2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문에 대한 의지가 강하여[26] 긍정적인 대처 기전을 활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좋은 동료관계는 스트레스 대처에 효율적인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는 전공 만족도($F=22.567, p<.001$), 동료관계($F=9.957, p<.001$), 건강상태($F=2.733, p=.045$), 입학동기($F=4.301, p=.006$)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ark과 Jang[26]의 연구결과 전공만족도, 건강상태, 대인관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전공에 만족하는 군이 다른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6, 27]. 이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되어 적극적으로 실습에 임하기 때문에[26],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교우관계가 매우 좋은 군이 보통인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임상실습은 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습 동료들과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협조적일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27, 30].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과과정과 비교과 과정의 효율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교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적용시 치료적인 대인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팀기반 학습의 적용이 필요한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정서조절 능력, 적극적 대처 및 소극적 대처, 임상실습 만족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인 문제중심 대처가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6, 30]와 유사하였다. 이는 정서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 Por 등[30]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정서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6]와도 유사하였다.

그리고 Lee와 Kim[31]의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실습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Han[3], Park과 Jang[26]의 연구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소극적인 대처가 임상실습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하였다. 하지만 Park과 Han[3]의 연구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소극적인 대처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전공만족도, 정서조절능력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임상실습 만족도를 28.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임상실습만족도의 영향요인이라고 한 Koo와 Im[3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공만족도가 높은 군이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으나, 영향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은 연구 결과[3, 27]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정서조절 능력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정서조절 능력이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가 없어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정서조절 능력이 자신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처한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기에[33], 다양한 임상 실습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서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난 Song과 Chae[6]의 연구 결과와,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주어진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행동하므로 그 결과에 만족한다고 한 선행 연구[19]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전공 만족도와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파악하여,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일반화에 제한점을 가진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조절 능력,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간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와 정서조절능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프로그램 개발 시 전공만족도와 정서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내 시뮬레이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적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H. S. Kim,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Practice Education in Health and Nursing Department", *Higher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Institution in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no. 8, pp. 1-101, 2013.
- [2] S. J. Han,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6, pp. 132-146, 2000.
- [3] W. J. Park, J. Y. Han, "The Effect of Ego-Resilience, Stress Coping Styles, Teaching, Effectiveness, and Family Support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by AMOS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365-375,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3.365>
- [4] K. J. Kang, S. J. Yu, H. M. Seo, M. S. Park, M. Yu, Y. R. Chae, D. H. Choi,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ism in Male and Female Student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 pp. 91-501, 2014. DOI: <http://doi.org/10.5977/jkasne.2014.20.4.4>
- [5] W. A. Khater, L. M. Akhu-Zaheya, I. A. Shaban, "Sources of Stress and Coping Behaviours in Clinical Practice among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4, no. 6, pp. 194-202, 2014.
- [6] J. E. Song, H. J. Chae, "Differences on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 pp. 502-512,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4.502>
- [7] R. S. Lazarus, "Coping Theory and Research: Past, Present, and Future", *Psychosomatic Medicine*, vol. 55, pp. 234-247, 1993. DOI: <https://doi.org/10.1097/00006842-199305000-00002>
- [8] Tache. J, Selye. H, "On Stress and Coping Mechanism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Vol 7, pp. 3 -24, 1985. DOI: <https://doi.org/10.3109/01612848509009447>
- [9] G. S. Yoo, D. W. Shin,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s on Academic Burnout and Employment Stres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vol. 14, no. 6, pp. 3849-3869, 2013. DOI: <https://doi.org/10.15703/kjc.14.6.201312.3849>
- [10] Y. L. Moon, "A Research on EI Development Programs for Character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Journal of Department of Education*, vol. 59, pp. 31-98, 1999.
- [11] J. H. Choi,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9.
- [12] I. S. Jang, "The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7, no. 3, pp. 749-761, 2016. DOI: <https://doi.org/10.7465/jkdi.2016.27.3.749>
- [13] K. H. Lee, "Mediation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Powerlessness and Nursing Imag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6, no. 1, pp. 26-34, 2010.
- [14] H. J. Park,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13-23, 201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1.014>
- [15] H. S. Yu,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 Practice,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7, no. 2(B), pp. 1129-1144, 2015.
- [16] H. J. Gu,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4, no. 2, pp. 205-215, 2008.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08.14.2.205>
- [17] M. H. Sung, “Factors Influence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8, no. 1, pp. 18-24, 2012.
- [18] T. S. Ahn, Y. A. Song,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1, no. 1, pp. 10-17, 2015.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15.21.1.10>
- [19] P. Salovey, J. D. Mayer,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 9, no. 3, pp. 185-211, 1990.
DOI: <https://doi.org/10.2190/DUGG-P24E-52WK-6CDG>
- [20] R. S. Lazarus,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1984.
- [21] J. S. Jan, K. S. Oh, “A Study on the Grief and Coping Pattern of Mothers who Have a Chronically Ill Child”, *Korean Nursing*, vol. 29, no. 4, pp. 73-87. 1990.
- [22] E. M. Na, “*Work Pressure and Types of Stress Coping among Preceptor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eoul, 2014.
- [23] K. J. Cho, H. S. Kang, “The Correlation of Self Esteem and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14, no. 2, pp. 63-74, 1984.
- [24] S. E. Lee,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 Drection for Clinical Education: Focused on Maternity Nursing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7 no. 2, pp. 333-348, 2014.
- [25] S. H. Lee, S. Y. Kim, J. 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0, no. 2, pp. 219-231, 2004.
- [26] H. W. Kwak, J. E. Yi,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inical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2 pp. 147-155,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2.147>
- [27] W. S. Lee, K. C. Cho, S. H. Yang, Y. S. Roh, G. Y. Lee,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 combined with Simulation on he Basic Nursing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6, no. 1, pp. 64-72. 2009.
- [28] M. J. Baek, W. J. Kim, H. S. Ryu, “Influencing Factors of Professional Self-Concept,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5, no. 6B, pp. 3353-3365. 2013.
- [29] E. J. Shin. “A Study related to Self-Efficacy, Satisfaction with Practice and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e”,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5, no. 3, pp. 380-386, 2008.
- [30] J. Por, L. Barriball, J. Fitzpatrick, J. Roberts, “Emotional Intelligence: Its Relationship to Stress, Coping, Well-Being and Professional Performance in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vol. 31, no. 8, pp. 855-860. 2011.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0.12.023>
- [31] H. S. Lee, E. J. Kim, “The Comparison of Stress Cop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the Grade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4, no. 1, pp. 5-13, 2008.
- [32] H. Y. Koo, H. S. Im,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1, pp. 311-321, 2013.
DOI: <https://doi.org/10.5392/JKCA.2013.13.01.311>
- [33] M. Y. Jung,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 Expression Abilities o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2013.

전 민 경(Min-Kyung Jeon)

[정회원]



- 2001년 8월 : 고신대학교 대학 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4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 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암환자 간호, 간호교육

김 미 숙(Mi-Sook Kim)

[정회원]



- 2004년 8월 : 고신대학교 대학 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5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 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다문화 간호, 간호 교육